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ODA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민재\*\* · 김태후\*\*\*

- 
- I. 서론
  - II. CSR 및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III. 모델수립 및 연구설계
  - IV. 실증분석
  - V. 결론 및 제언
- 

주제어 : CSR, CSV, BOP, CSRD, ODA

### I. 서론

지난 50년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가며 그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였다. 나아가 CSR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CSV, BOP, CSRD, 3BL, 이해관계자 이론 등)이 등장하면서 해당 개념들과 CSR 사이에서의 개념 정립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 지속가능경영 등과 동일시하는 등의 오류를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CSR 논문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논문임.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박사통합과정(제1저자), E-Mail : alswodhdl@naver.com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연구원(교신저자), E-Mail : xogn777@naver.com

범하고 있다.)

본 연구는 CSR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내용으로서 기존의 경영방식과 분리될 수 없는 경영 그 자체이며, 자선활동·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책임 중 일부임을 주장한다. 또한 CSR이 도입 초기에는 필연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나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투자로서, 단순히 이윤을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과 나누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한 전략적 경영수단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국제통상구조가 다각화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세계 각국에 자원이나 식량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타 국가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에도 150개국 이상이 개도국이라 불리고 있으며 빈곤·분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실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주목, 공여국·수원국에 있어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고안한 전략적 CSR모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CSR에 대한 정의를 반복하고 재조명하는데 있지 않다. CSR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고찰을 통해 공적개발원조에 최적화된 CSR모델을 발굴하고 공여국과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여 서로 유기적·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범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CSR과 ODA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CSR, ODA에 대한 배경을 각각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명시, 본 연구의 핵심이 될 ‘전략적 CSR모델’을 정립하고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설계한 모형 및 가설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서술하였다. 제5장은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방향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1)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인 책임수행을 의무 및 우선순위로 두는 경영형태로서, 기업 및 개인의 이익추구활동과 기업윤리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윤리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단의 근거를 개인의 윤리적 가치에 두기 때문에 매우 관리하기 힘들며, 자칫 임직원을 감시·감독하는 일종의 통제장치로 인식될 수 있다.

## II. CSR 및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CSR 개관 및 고찰

CSR이란 기업이 윤리적 관점에서의 사업활동을 통해 자주적으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책임을 일컫는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소비자, 투자자, 임직원 등 및 사회 전체)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책임을 가리킨다. 기업경영의 근간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활동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미래를 사회와 함께 구축해 나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CSR이라 함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추상적인 경향이 강해 많은 조직 및 기업에서 그에 대한 개념 정립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CSR과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과 관련하여 그 구분을 혼동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논자에 따라 그 내용이 천차만별로 명확한 하나의 통일규정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EU의 Green Paper에 의하면 “CSR이란 기업이 영리활동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사회 및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주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 정의되었으며,<sup>2)</sup> KOREA CSR Consulting Group의 정의에 의하면 CSR이란 “기업이 사회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하나의 기업시민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경제적·법적·윤리적·자신적 기대에 자발적·적극적으로 부응하려는 노력”<sup>3)</sup>으로 정의되며,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합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 공정성 및 환경을 배려하고 이해관계자(주주, 임직원, 고객, 사회 등)와의 소통을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 제고를 목표로 CSR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그 외에도 CSR은 “기업이 경제·환경·사회 등 폭넓은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 “기업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 및 환경을 배려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며, 결과적으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 등,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井上 貴也, “取締役の義務とCSRに関する一考察”, 東洋通信 第53卷 第6号, 東洋大學通信教育部, 2017, p. 32.

3) 유명훈, CSR과 지속가능경영 I, HM연구소, 2008, p. 31.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와 함께 CSR 및 CSR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이 대두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CSR에 대한 요구의 증대로 인해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을 가능케 하고 사회적 ‘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ship)’<sup>4)</sup> 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맞이 하였다. 각 연대별 경영패러다임의 변천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각 연대별 경영패러다임의 변화

연 대	경영 패러다임	내 용
1980년대	전통적 경영	단기수익성 강조
		경제와 환경이 상충
		재무정보 제고
1990년대	환경 경영	경제와 환경의 조화
		사전예방적 접근
		이해관계자의 재무 및 환경정보
2000년대	CSR과 지속가능경영	투명성 및 윤리성 강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시
		지속가능활동 정보 요구

\* 자료: 김민재, “해운기업의 CSR 활용전략을 위한 연구모형 도출에 관한 고찰 - CSR피라미드 모델을 이용하여 -”, 무역경영연구 제11호, 한국무역경영학회, 2017. 04, p. 25.

산업공해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한 피해 집단의 발생·반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대립, NGO의 요구 증대, 반(反)기업 정서의 확산 등이 거듭되면서 '60년대의 한국의 100대 기업 중 '06년 기준으로 7개의 기업만이 생존한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시대를 거치며 변화를 거듭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가능경영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sup>5)</sup>

둘째, 정보기술 사회화와 ‘적극적 이해관계자’의 출현을 들 수 있다. 기업관련 정보를 자신들이 원할 때 적절히 발견하고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를 기업에게 전달하는 프로세스가 대폭 용이해지고 명확해졌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비밀이 존재하지

4) 기업도 훌륭한 시민처럼 사회적 책임, 권리 및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납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제공, 양질의 제품 생산, 환경보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여현덕, “국제개발협력에서 기업참여의 논리와 유형: 그 가능성과 한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7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9, p. 90.

5) 김민재, “해운기업의 CSR 활용전략을 위한 연구모형 도출에 관한 고찰 - CSR피라미드 모델을 이용하여 -”, 무역경영연구 제11호, 한국무역경영학회, 2017. 4, pp. 25~26.

않음을 뜻한다. 인터넷과 같이 익명성이 강화된 매체의 보급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행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제품·서비스의 불만족을 알리고 개선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의식과 비판 등을 전략적으로 무마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정보통신매체가 발달하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식이 제고된 현재로서는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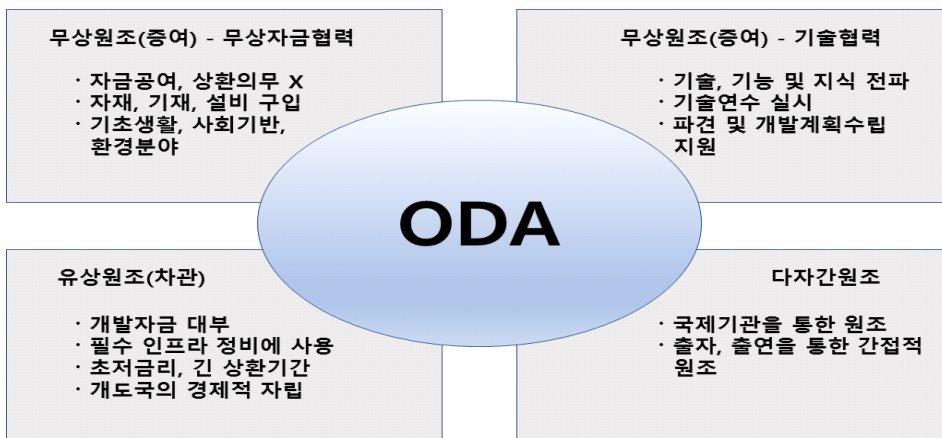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업경영의 글로벌화를 들 수 있다. 소니의 전략상품이자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친 PS2가 유럽시장 진출 시 제품 뒷면의 연결부위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EU가 규정하는 함유량을 초과하여 전량 회수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기업은 자국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정세와 국제사회의 요구 및 기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윤리적 기업경영과 사회적 책임 완수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준들이 크게 증가하였다.<sup>6)</sup>

## 2. 공적개발원조의 개관 및 고찰

ODA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선진공업국의 정부 및 기관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원조 및 출자를 일컫는다.

ODA의 종류 및 형태는 ‘양자간원조’와 ‘다자간원조’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간 원조는 ‘무상원조(증여: 상환의무 없음)’와 ‘유상원조(차관: 상환의무 있음)’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ODA의 종류 및 형태



6) 상계논문, p. 26.

무상원조(증여)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이 대표적이다. 먼저 무상자금협력은 개도국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자금을 공여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자재·설비 등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된다. 자금협력의 대상국은 개도국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 분야는 보건, 위생, 물, 교육, 농촌과 같은 기초생활분야, 사회기반정비, 환경분야 등 폭넓은 협력이 실시된다.

기술협력은 개도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공여국의 기술·지식을 개도국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도국의 기술자나 행정관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연수의 실시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및 봉사자 파견, 다양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개발계획조사형 기술협력 등이 있다.

유상원조는 대개 ‘차관’으로 불린다. 차관이란 개도국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개발자금을 대부하는 것으로 개도국은 차후 차입한 자금을 상환을 의무를 지닌다. 단, 금리가 나게 책정되며 상환기간도 길게 설정된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 중 소득이 현저히 낮은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0.01%’라는,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가 책정되기도 한다. 개도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기반, 즉 인프라 정비가 중요하다. 이러한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의 정비 등에 활용되는 자금이 차관이며, 많은 공여국에서 대표적으로 행하는 유상원조 형태이다.<sup>7)</sup>

다자간원조는 해당 국제기관을 통한 원조로서, 수원국에 자금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WB),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 등 다양한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원조형태이다.<sup>8)</sup>

세계에는 약 195개국 이 존재하고, 이 중 150개국 이상이 개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로서 대부분이 빈곤·분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빈곤에 의한 위기상황의 악화가 감염병 만연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상실시키며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가 글로벌화 된 현재 이러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상구조가 다각화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세계 각국에 자원이나 식량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타 국가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한국 혼자만으로는 국가로서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화·안정·발전을 위해 개도국 및 그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협력이다. 국가가 실시하는 ODA 및 다국간의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조직, 단체, 기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CSR 활동이 점점 중요해지며 NGO, 대학, 지자체 등이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sup>9)</sup>

7) JICA, 國際協力·ODAについて, <https://www.jica.go.jp/aboutoda/basic/03.html>

8) KOICA, ODA알기, <http://www.koica.go.kr/dev/printPopUp.jsp>

〈표 2〉 주요국들의 ODA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원)

	2014	2015	2016
프랑스	10조 1,501억	10조 2,683억	10조 7,431억
독일	16조 414억	20조 3,798억	27조 7,263억
영국	20조 4,366억	21조 659억	22조 8,279억
미국	38조 3억	35조 1,989억	37조 6,697억
일본	9조 6,082억	10조 4,534억	10조 5,488억
한국	2조 61억	2조 1,754억	2조 2,481억

\* 자료 : OECD statistics

### Ⅲ. 모델수립 및 연구설계

#### 1. 선행연구 고찰

여현덕(2015)은 기업이 CSR을 실천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따르는 현실주의 노선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상주의 노선 사이에서 이른바 ‘CSR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와 사례에 대하여 고찰하고, CSR과 친화성이 있는 다양한 이론들(CSRD, BOP, CSV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모델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sup>10)</sup>

이호갑·이걸주(2017)는 당기 CSR 활동이 당기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시차모형을 이용하여 그 영향의 지속성 여부를 검증, CSR 활동은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 동인이며, CSR 활동으로 인한 지속성을 확인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은 반드시 법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CSR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sup>11)</sup>

구정우 등(2015)은 CSV 원리를 적용하여 개도국의 빈곤타파 및 개발에 기여 가능한 민관협력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핵심역량 활용, 새로운

9) JICA, 國際協力·ODAについて, <https://www.jica.go.jp/aboutoda/whats/cooperation.html>

10) 여현덕, 전제논문, pp. 70~71.

11) 이호갑·이걸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22권 제1호, 대한회계학회, 2017. 2, p. 71.

가치 창출, 국가협력전략과의 조응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량 활용<sup>12)</sup>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CSV를 통한 민관협력 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민관협력 모델이 이미 현장에서 구현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sup>13)</sup>

손혁상 등(2014)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한국의 민관협력사업을 살펴보았다. 2010년~2012년에 걸쳐 사업지역, 예산규모·기간, 분야별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사업발굴과 재정분담, 파트너십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과 한계를 설명하였다. 국내 민관협력사업의 단선적 사업발굴 및 재정분담 방식의 문제점과 공여국 중심의 파트너십,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 등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과 지속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sup>14)</sup>

김성규(2014)는 사회복지 및 그 시스템의 구축 등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기업의 영리활동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기업의 글로벌 CSR 전략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개발협력 과정에서 더욱 현저히 나타나며, CSR, CSV가 개발협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전략 형성과 개발자원 확대의 측면에서 유효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谷内田 絢子·土肥 真人(2014)는 기업과 NGO와의 파트너십이 한정적인 분야에 그치고 있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국내에 거점을 두는 기업과 NGO가 현재 실천 중인 파트너십을 유형화하고 그 과제 및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기업과 NGO와의 파트너십 형태는 기부형, 지원형, 협동형으로 분류된다고 주장, 특히 기업과 NGO의 전문성이 결부되는 협동형은 개도국 현장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며, 국내외에 기업의 지명도 및 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NGO 또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향후에도 파트너십을 다양화시키며 기업과 NGO에 의한 국제협력 활동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6)</sup>

12) Porter, M. E. and Kramer, M. R.,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Harvard University, 2011, p. 63.

13) 구정우·김율리·김대욱, "글로벌 사회공헌에서 공유가치 창출로: 국제개발 민관협력 혁신모델의 조건",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1호*, 국제학연구소, 2015. 3, p. 75.

14) 손혁상·박보기·김남경,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연구: KOICA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2호*, 국제학연구소, 2014. 6, p. 121.

15) 김성규, "기업의 글로벌 CSR 현황과 공유가치창출(CSV)", *국제개발협력 제2014권 제1호*, 한국국제협력단, 2014. 2, p. 26.

16) 谷内田絢子·土肥真人 "國際協力活動における日本の企業とNGOのパートナーシップの實態と可能"



向山 敦雄(2017)은 현대의 CSR 개념을 재조명하였으며, 전통적인 규범적 CSR은 후퇴하고 이해관계자 이론 및 CSV와 결부되며 전략적 CSR에 대한 이해도 및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CSR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발성에 의한 활동이나, 이제는 자발성·재량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경영과 장기적 존속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였고, 기업가치에 직접적으로 공헌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커다란 리스크를 수반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大浦 眞衣(2017)는 CSR과 기업의 업적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기업경영에서의 CSR의 전략적 활용의 효과에 대해 명시하였다. 東洋經濟新報社가 발행하는 ‘CSR 企業總覽’의 2007~2010년 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CSR과 기업의 재무성과(ROA, ROE)의 상관성에 대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야의 CSR 항목 중 ‘인재활용’은 재무성과와 정의 관계를 갖고, ‘사회성’은 ROA와 정의 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환경’, ‘지배구조’ 항목은 재무성과에 있어 어떠한 유의한 관계도 갖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sup>18)</sup>

小林 甲一·後藤 健太郎(2017)는 한국에서의 청취조사 및 사례조사 조사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배경 및 개요와 전개, 실시 주체인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사업 내용 및 과제를 살펴보고 사회적 기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성법, 지원제도, 진흥정책으로는 다룰 수 없는 사안도 포함하여 정부 지원뿐 아니라 정부 이외의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및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기업의 CSR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9)</sup>

Milton Friedman(1970)은 “기업경영자의 사명은 주주이익의 극대화이며 그 이외의 사회적 책임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지면 자유사회의 근간을 흔들게 되며 사회적 책임은 자유를 파괴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은 주주의 도구이며 기업의 최종경영자는 주주로서, 만약 기업이 무언가를 기부하면 그 행위는 주주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

性”, *논프로핏·레뷰* 第14卷 第1&2号, JAPAN NPO RESEARCH ASSOCIATION, 2014, p. 29.

17) 向山 敦雄, “CSR再考 : CSRはカメレオン?”, *國際學研究* 第6卷 第2号, 關西學院大學國際學部 研究會, 2017, pp. 47~49.

18) 大浦 眞衣, “CSRへの取り組みと財務パフォーマンスの関係性 - 上場企業のパネルデータを用いた實証分析 -”, *논프로핏·레뷰* 第17卷 第1号, JAPAN NPO RESEARCH ASSOCIATION, 2017, p. 62.

19) 小林 甲一·後藤 健太郎, “韓國における社會的企業の育成政策と展開”, *名古屋學院大學論集, 社會科學篇* 第53卷 第3号, 名古屋學院大學總合研究所, 2017, pp. 1~15.

다. 자유사회에서 재산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개인이어야 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규율을 지킨 후 주주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업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지적하였다.<sup>20)</sup>

Prahalad는 저서 『The Fortune of the Pyramid』에서 BOP(Bottom of the Pyramid) 모델을 정의 하였다. ‘Bottom of the Pyramid’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3천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을 가리키며,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BOP 비즈니스 모델이란, 개도국의 BOP층에게 유익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함께 BOP층의 소득향상이 예상되며, 새로운 유망시장 ‘Next Volume Zone’으로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약 40억 명으로 추정되는 BOP층은 곧 그 대부분이 중산층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며, ‘50년까지는 전 세계 인구의 약 85%를 개도국의 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Next Volume Zone’은 향후 각 기업들의 비즈니스 인프라로서 판매거점, 브랜드 전개, 네트워크 확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1)</sup>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상기 요소들을 CSR과 관련은 있으나 그와는 별개의, 혹은 한층 더 진화된 개념으로 고찰하고 그 효과 및 향후 방향 제시 등에 초점을 두었다. 예컨대 Porter·Kramer(2006)는 CSR을 자선활동 위주의 ‘기업의 선행(Doing good)’으로 보았으며, 이윤창출과는 무관한 평판 관리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그 예산규모에 따라 활동 폭도 제한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는 CSR보다 진일보된 개념으로서, 투자비용 대비 높은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업의 자원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창출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sup>22)</sup>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CSR의 정확한 개념 및 적용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CSR과 다른 관련 개념들을 분리한 고찰은 소극적 범위에서의 CSR만을 이해하고 있으며 학문적 트렌드 혹은 특정 학자들의 의견에 편향된 학설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 공적개발원조

20) Friedman, M.,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Vol.74 No.3684, New York Times Company, 1970, p. 33.

21) Prahalad, C. K.,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Wharton School Publishing*, New Dehli, 2005.

22) Porter, Michael E. and Mark R. Kramer, “Strategy &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Vol.84 No.12, Harvard University, 2006, pp. 78~92.

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전략적 CSR모형을 제시하고, 해당 모델이 공적개발원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ODA형 전략적 CSR모형 정립

'90년대 후반에서 '00년대에 걸쳐 세계적으로 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배경은 '90년대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세계화와 그에 따른 자본시장에서의 경쟁심화가 국제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심각한 영향을 끼쳐 온데 있다. 신흥국 및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사슬, 아동, 강제노동, 부패 및 빈부격차 등의 인권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식품안전, 품질위조, 뇌물공여, 회계부정, 담합 등의 불상사·비윤리적 행태로 대표되는 Compliance 문제도 들 수 있다. 즉, 글로벌화에 따른 '부(負)'의 발생이 CSR, 글로벌 CSR의 기점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빈곤감소 및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기업의 CSR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CSR은 기업이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개도국 시장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Win-Win 전략을 가능케 한다. 저소득층·BOP 시장 등은 그 자체로 규모가 크고 잠재성이 높으며, 현지 개도국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다양한 혁신적인 방법들은 전 세계 저소득층의 혁신뿐 아니라 선진 공여국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수원국·개도국 또한 민관협력을 강조하며 혁신을 향상시키고 부, 소득, 일자리 등을 창출하며 내수 자원을 촉진시킴으로써 결국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민간 부문의 주요 역할을 인정하고 있어, 기업의 ODA를 통한 CSR 활동이 빈곤 완화 및 복지 개선의 중요한 역할자로서 바라보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명분은 기업이 지역사회와의 공생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책임을 수행한다는, 즉 CSR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한다는데 있다. 경제·사회·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경영상의 책무를 다하여 공동체와의 공존 및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대 기업들은 경제적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진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저소득 국가를 상대로 한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경제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자선에 대한 요구 또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각 국제기구들의 '국제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춘 CSR 정의를 정리하자면 <표 3>과 같다.<sup>24)</sup>

23)鈴木 均, "글로벌CSR의潮流 : 「サステナビリティによる価値創造」へ", 21世紀社會デザイン 第15号, 立教大學大學院21世紀社會デザイン研究科, 2016, p. 7.

〈표 3〉 국제기구에 의한 CSR 정의

	국제기구	정 의
사회 책임	EU Commission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 환경 및 경제적 문제를 기업 활동에 포용하고, 기업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통합하는 개념
	UNCTAD	기업이 사회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
	ISO	조직이 경제, 사회 및 환경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사람, 지역, 공동체 및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
	OECD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책임 있는 행동

\* 자료 : 여현덕, “국제개발협력에서 기업참여의 논리와 유형: 그 가능성과 한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7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9. p. 72.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규범적 CSR론으로부터 탈피하여 CSV, BOP, CSRD 이론과 같은 CSR과 친화성 있는 제반 개념들과 결부된, 현대의 국제경영에 부합한 통합된 전략적 CSR을 이해하고 그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요구 및 난제(難題)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원칙인 CSV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고 그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발상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CSV는 CSR에 수동적·수세적으로 임하는 기업들에게 능동적·공세적으로 임하도록 제시하는 가치관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sup>25)</sup>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SR·CSV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방식 및 소극적 범위에서의 전통 CSR 개념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Porter & Kramer 및 그 연구를 재조명한 많은 학자들은 CSR을 ‘단순한 선행(Doing Good)’, ‘이윤극대화와는 무관한 개념’, ‘기업가치와 사회가치간 연계성 미흡’ 등의 구성요소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국제경영에 부합한 전략적 CSR의 의미는 단순한 소비·자선행위가 아니고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투자행위이다. 오늘날 국제경제 및 경영, 소비자 시장환경은 기업으로 하여금 CSR에 투자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CSR은 기업이 상품을 차별화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기존의 경영방식과 분리될 수 없는 ‘경영 그 자체’로서, 단순히 어렵게 벌어들인 이윤을 이해관계자들과 나누는 것이 아닌 서로 유기적·장기적으로 상생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24) 여현덕, 전제논문, p. 71.

25) 向山 敦雄, 前掲論文, p. 53.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은 둔, 단순한 윤리경영에 비해 보다 자발적·적극적이며 구체적인 개념으로 CSV를 이미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경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Prahalad(2003)의 빈곤층 소득개발론은 빈민시장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역할과 장점에 대해 논한다.<sup>26)</sup> BOP비즈니스는 기업으로 하여금 글로벌 시장에서 자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CSR’과 일맥상통하며, 인간과 자산이라는 한정된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CSR’의 중요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게 경제성과 체고라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개도국·빈곤층 입장에서조차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고용 창출, 소비 확대, 유통 네트워크 정비 등 현지 경제에 대한 공헌도 다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킨다.<sup>27)</sup>

셋째, Carrol(1991)은 CSR을 정의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두드러지는 단어는 ‘이해관계자와의 통합’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The Pyramid of CSR’모형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단계적으로 경제적 책임(주주가치 및 이해관계자의 복지 극대화)·법적 책임(모든 법규와 정부 규제를 준수)·윤리적 책임(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행동기준을 준수)·자선적 책임(사회 기부)을 망라, 현재 CSR의 정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널리 수용되고 있다. CSR(D(CSR in Development; 사회책임개발론)은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형태로, 선진국 사회책임 활동에서는 경제와 법의 준수부터 시작할 수 있으나 개도국은 여건상 그런 순서와 단계를 고수할 수만은 없다는 논리이다. “항산(恒産)이 없는데 항심(恒心)의 윤리를 강요할 수 없듯이”, 체념과 생활고에 빠진 개도국·수원국의 주민들에게 정신적·물리적 동기부여를 통해 일어서게 하는 자선활동이 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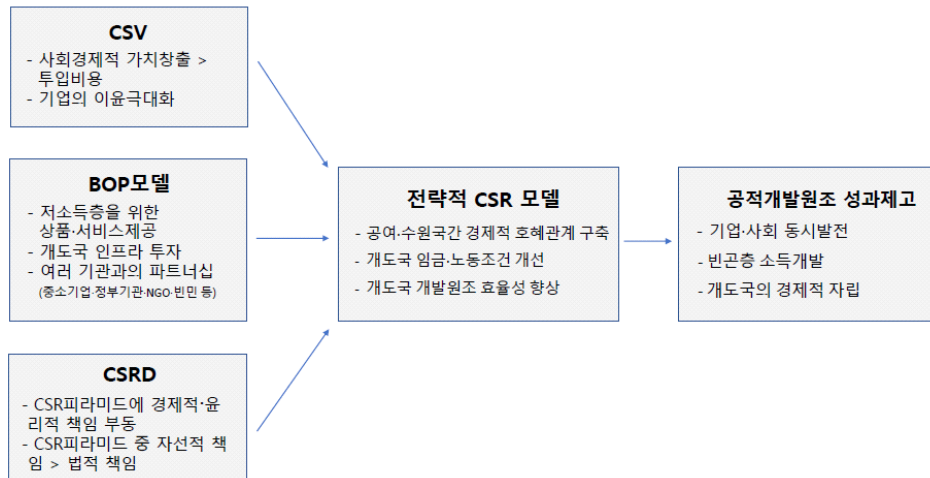
26) 다국적 기업은 지구촌의 40억 인구 중 빈민(소득수준 1,500달러 이하의 계층)을 시장에 편입시켜야 한다, 그 수와 잠재력이 엄청나며, 이들 개개인의 수입은 적지만 합쳐진 소비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먼저 투자하는 셈치고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후에 이익이 돌아온다. 빈곤층의 현지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펴야 하며, 보다 좋은 질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시장을 점유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혁신과 가격인하 등의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많은 개도국이 인프라 취약으로 인해 자원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빈곤극복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야 한다. 저소득층 시장은 잠자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가난한 소비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부기관, NGO, 개발협력기관, 그리고 저소득층 빈민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집단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as a massive scale)을 발휘해야 한다. 여현덕, 전개논문, pp. 76~78.

27) 水尾 順一, “グローバルCSRの視点によるBOPビジネスと共益の創造-ガーナにおけるカカオ・サステイナビリティの要諦と展開-”, 駿河台経済論集 第21卷 第2号, 駿河台大學, 2012, p. 134.

저 주어지고 나서야 윤리와 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CSR 모델은 ‘공적개발원조형 CSR’로서 CSR 피라미드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경제적 책임→자선적 책임→윤리적 책임→법적 책임 단계로 재구성하여,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배치를 사회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규제와 법적 요건을 완화하도록 유연하게 수정한다.<sup>28)</sup>

### 3. 연구설계

<그림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CSR 관련 개념들(CSV, BOP모델, CSRD)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적 CSR모델’에 수렴되며 ODA의 성과제고로 연결된다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SR, CSV, BOP, CSRD, ODA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이러한 개념들의 각 내적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 함의하고자 하는 ‘전략적 CSR 모델’에 미치는 영향 및 해당 모델이 공적개발원조의 성과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28) 여현덕, 전개논문, pp. 75~76.

<표 4>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 수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CSV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 투입비용	기업·사회의 동시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CSR의 구성요소	구정우·김율리·김대욱, “글로벌 사회공헌에서 공유가치 창출로: 국제개발 민관협력 혁신모델의 조건”,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 1호, 국제학연구소, 2015. 3, pp.79~83. 向山 敦雄, “CSR再考 : CSRは カメレオン?”, 國際學研究 第6卷 第2号, 2017, p. 53.
	기업 이윤극대화		
BOP 모델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서비스제공	빈곤층 소득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CSR의 구성요소	여현덕, “국제개발협력에서 기업참 여의 논리와 유형: 그 가능성과 한 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7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9, pp. 76~78. 水尾 順一, “グローバルCSRの視 点によるBOPビジネスと共益の 創造-ガーナにおけるカカオ・サ スティナビリティの要諦と展開 -”, 駿河台経済論集 第21卷 第2 号, 2012, p. 134.
	개도국 인프라 투자		
	여러 기관과의 파트너십 (중소기업, 정부기관, NOG, 빈민 등)		
CSR/D	경제·윤리적 책임 부동	개도국 개발원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CSR의 구성요소	여현덕, “국제개발협력에서 기업참 여의 논리와 유형: 그 가능성과 한 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7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9, pp.75~76.
	자선적 책임 〉 법적 책임		
전략적 CSR 모델	공여·수원국간 경제적 호혜관계 구축	공적개발원조 성과제고를 위한 매개요소	葉山 彩蘭, “Business to Society からBusiness in Societyへ - 「企業都社會を捉える視点の轉換」 -”, 日本經營倫理學會誌 第12号, 2005, p. 113.
	개도국 임금·노동조건 개선		
	개도국 개발원조 효율성 향상		
ODA 성과제고	기업·사회 동시발전	—	—
	빈곤층 소득개발		
	개도국 경제적 자립 및 자주적 개발		

<b>[가설1] CSV의 요소들은 전략적 CSR모델에 정(+)<sup>29</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b>	
가설1-1	기업의 CSV 활동으로 인한 투자보다 큰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은 공여·수원국간 경제적 호혜관계 구축에 정(+) <sup>29</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기업의 CSV활동을 통한 이윤극대화는 공여·수원국간 경제적 호혜관계 구축에 정(+) <sup>29</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진섭 외(2014)는 기존 ODA의 다양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근원적인 ODA의 방법으로서 CSV에 기반을 둔, 윤리적 측면뿐 아니라 전략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수원국과 공여국 및 글로벌 경제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Smart ODA’ 모델을 제시하였다.<sup>29)</sup>

<b>[가설2] BOP모델의 요소들은 전략적 CSR모델에 정(+)<sup>30</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b>	
가설2-1	기업의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서비스 제공은 개도국의 임금체제 및 노동조건에 정(+) <sup>30</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기업의 개도국 인프라 투자는 개도국의 임금체제 및 노동조건에 정(+) <sup>30</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기업의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중소기업·정부기관·NGO·빈민 등)은 개도국의 임금체제 및 노동조건에 정(+) <sup>30</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水尾 順一(2012)는 BOP비즈니스가 ‘전략적(Strategic CSR)’의 중요영역으로서, 기업에게는 성과제고라는 경제적 가치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sup>30)</sup> 개도국에서의 공정·윤리적 임금체제, 비윤리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1)</sup>

<b>[가설3] CSRD의 요소들은 전략적 CSR모델에 정(+)<sup>3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b>	
가설3-1	CSR Pyramid의 구성단계 중 경제적·윤리적 책임의 부동(不動)은 개도국 개발원조 효율성 향상에 정(+) <sup>31</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CSR Pyramid의 구성단계 중 자선적 책임을 법적 책임보다 우선시함은 개도국 개발원조 효율성 향상에 정(+) <sup>31</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9) 정진섭 외, “공유가치창출(CSV)에 기반을 둔 한국의 ODA 전략”, 국제경영리뷰 제18권 제4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4. 12, p. 75.

30) 水尾 順一, 前掲論文, p. 134.

31) 葉山 彩蘭, “Business to SocietyからBusiness in Societyへ - 「企業都社會を捉える視点の轉換」”, 日本經營倫理學會誌 第12号, 日本經營倫理學會, 2005, p. 113.



여현덕(2015)은 Carrol(1991)의 ‘The Pyramid of CSR’ 모델의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 4단계에 있어 경제적 책임 및 윤리적 책임의 우선순위에는 변동을 가하지 않고, 이 중 자선적 책임을 법적 책임보다 우선시하는 CSR(D(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Development; 사회책임개발론)을 공여국의 수원국 개발원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형 CSR 모델이라고 주장하였다.<sup>32)</sup>

<b>[가설4] 전략적 CSR모델의 요소들은 공적개발원조의 성과제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b>	
가설4-1	공여·수원국간 경제적 호혜관계 구축은 기업·국제사회의 동시발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개도국의 임금·노동조건 개선은 빈곤층 소득개발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3	개도국 개발원조의 효율성 향상은 개도국의 경제적 자립 및 자주적 개발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CSV, BOP모델, CSR(D가 ‘전략적 CSR모델’에 수렴됨을 이론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전략적 CSR모델’의 매개효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적개발원조의 성과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 IV. 실증분석

### 1. 데이터 수집 및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 영역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사항과 같은 일반사항이며, 두 번째 영역은 CSV가 기업 및 사회의 동시발전에 미칠 예상효과에 관한 문항, 세 번째 영역은 BOP비즈니스가 빈곤층의 소득개발에 미칠 예상효과에 관한 문항, 네 번째 영역은 CSR(D가 개도국의 대한 공적개발원조 효율성 제고에 미칠 예상효과에 관한 문항,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적 CSR모델이 공적개발원조의

32) 여현덕, 전개논문, pp. 75~76.

성과에 미칠 예상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일반사항은 응답자의 소속명, 부서명, 학력, 직위, 산업 분류, 회사 소재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으며, 두 번째 CSV에 대한 문항에서는 기업의 CSV활동이 공여국·수원국간의 경제적 호혜관계 구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고, 세 번째로는 BOP비즈니스가 개도국의 불합리한 임금체제 및 비윤리적인 노동조건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설문하였다. 네 번째로는 CSRD가 ODA의 효율성 제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문의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적 CSR모델’이 공적개발원조의 성과제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의 성과제고를 위한 ‘전략적 CSR모델’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해당 모델이 공적개발원조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ODA 관련기관·공공기관·일반기업·ODA 및 CSR 관련 전문가 및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126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5> 설문조사 현황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합계	
	배부	회수	배부	회수	배부	회수
수출기업수	141	94	32	32	173	126

126부의 응답자 중 82명이 직위에 대해 기재하였으며, 회사 직위 분포를 살펴보면 과장 15명(18%), 부장(팀장) 14명(17%), 사원 13명(16%), 대리 9명(11%), 대표 3명(3%), 기타(연구원, 학생 등) 28명(35%)을 차지하여 응답자 표본으로서 적절함을 보이고 있다.

<표 6> 표본의 직위

	빈도	비율(%)
사원	13	16
대리	9	11
과장	15	18
부장(팀장)	14	17
대표	3	3
기타	28	35
합계	82	100%

표본의 회사(연구소, 교육기관 등 포함) 소재지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대구, 울산, 대전·부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26명 중 90명이 회사 소재지에 대해 기재하였다.

<표 7> 회사 소재지

	빈도	비율(%)
서울	28	31.1
경기도	24	26.7
강원도	9	10.0
충청도	7	7.8
대구	6	6.7
울산	5	5.6
대전	3	3.3
부산	3	3.3
기타	5	5.5
합계	90	100%

## 2.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로서는 이미 이론적으로 체계화 또는 정립된 연구에 있어서 변수의 재구조화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확인적인 (Confirmatory)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표본들을 AMOS 24를 이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확인적 요인 분석 적합도 지수

$\chi^2$	Q(CMIN/DF)	RMSEA	NFI	CFI	TLI
63.283	1.151	.035	0.824	0.970	0.958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상기의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hi^2=1.151$ , RMSEA=0.035, NFI=0.824, CFI=0.970, TLI=0.958로, Q값이 다소 낮게 관측되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lt;표 9&gt; 변수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S.E.	C.R.	P
CSV	CSVcv	1.000			
	CSVmp	1.457	0.385	3.788	***
BOP	BOPgs	1.000			
	BOpii	1.126	0.264	4.269	***
	BOPps	1.002	0.238	4.215	***
CSRD	CSRDee	1.000			
	CSRdcl	1.583	0.674	2.350	0.019
SCSR	SCSRrs	1.000			
	SCSRwl	1.176	0.182	6.457	***
	SCSRrei	1.221	0.174	7.024	***
ODA	ODAcc	1.000			
	ODAbop	1.143	0.323	3.536	***
	ODAEi	1.420	0.411	3.459	***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척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정하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있다. 문항들 간의 일관성 유무, 평균을 내어 변수를 생성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1까지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0.6 이상일 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고 해석되며, 1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lt;표 10&gt; 신뢰도 통계

Cronbach's $\alpha$	항목의 N
0.707	13

<표 10>은 '항목 전체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통계량이며,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13개의 문항의 전체 Cronbach's  $\alpha$  계수가 0.707이라는 의미로, 보편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표 11> 항목 총계 통계량

변수	수정된 항목 총계 상관	항목 삭제 시 Cronbach's $\alpha$
CSVcv	0.311	0.693
CSVmp	0.309	0.693
BOPgs	0.388	0.681
BOpii	0.429	0.676
BOPps	0.335	0.689
CSRDee	0.249	0.701
CSRdcl	0.279	0.699
SCSRrs	0.498	0.670
SCSRwl	0.601	0.651
SCSRrei	0.583	0.657
ODAcc	0.092	0.719
ODAbop	0.137	0.711
ODAei	0.124	0.716

일반적으로 신뢰도 분석에 있어 ‘수정된 항목 총계 상관’ 값이 0.3 미만인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고려되며, 해당 항목 삭제 시 ‘신뢰도 통계(항목 전체의 통계)=0.707’을 상회하는 Cronbach's  $\alpha$  값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ODAcc(기업·사회 동시발전), ODAbop(빈곤층 소득개발), ODAei(개도국의 경제적 자립) 세 변수가 항목 삭제 시 신뢰도 총통계량을 약간 상회하게 되나, 그 이외의 10개의 변수들은 모두 적합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어 본 연구 변수들의 신뢰도를 대체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체계화 또는 정립되지 않은 연구에 있어서 변수의 재구조화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으로써, 탐색적(exploratory)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표본들을 SPSS 22를 이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2> KMO 및 Bartlett 검정

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0.727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343.821
	df	78
	유의수준	0.00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검정이다. Kaiser-Meyer-Olkin(KMO)의 측정값이 0.5 이상일 경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2>에는 KMO의 측정값은 0.727,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은 근사 카이제곱 값이 343.821(Sig=0.000)로 측정되어 각각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으며 상관관계 또한 적합하여, 측정문항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통성이란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통성이 0.4 미만일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추출 방법은 주 구성요소 분석(principle component)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0.4 미만의 추출값을 가진 변수는 없기에 모두 적용하였다.

<표 13> 공통성

변수	초기	추출
CSVcv	1.000	0.577
CSVmp	1.000	0.710
BOPgs	1.000	0.627
BOPii	1.000	0.609
BOPps	1.000	0.686
CSRDee	1.000	0.843
CSRdcl	1.000	0.694
SCSRrs	1.000	0.531
SCSRwl	1.000	0.669
SCSRei	1.000	0.628
ODAcc	1.000	0.603
ODAbop	1.000	0.686
ODAei	1.000	0.686

<표 14> 회전된 성분행렬

	구성요소				
	1	2	3	4	5
BOPps	0.814	.	.	.	.
BOPii	0.755	.	.	.	.
BOPgs	0.520	.	.	.	.

	구성요소				
	1	2	3	4	5
CSVmp	.	0.834	.	.	.
CSVcv	.	0.732	.	.	.
SCSRrs	.	.	0.436	.	.
SCSRwl	.	.	0.680	.	.
SCSRrei	.	.	0.463	.	.
CSRdcl	.	.	.	0.795	.
CSRdee	.	.	.	0.887	.
ODAei	.	.	.	.	0.811
ODAcc	.	.	.	.	0.610
ODAbop	.	.	.	.	0.815

<표 14>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회전 성분 행렬이다. BOPps, BOPpi, BOPgs는 각각 변수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 ‘개도국 인프라 투자’,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서비스제공’을 의미하며, 성분 1열의 적재값이 추출되었다. 다음으로 CSVmp, CSVcv는 각각 ‘기업의 이윤극대화’, ‘투입비용을 상회하는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을 의미하며, 성분 2열의 적재값이 추출되었다. 다음으로 SCSRrs, SCSRwl, SCSRrei는 각각 ‘공여·수원국간 경제적 호혜관계 구축’, ‘개도국 임금·노동조건 개선’, ‘개도국 개발원조 효율성 향상’을 의미하며 성분 3열의 적재값이 추출되었다. 다음으로 CSRdcl, CSRdee는 각각 ‘CSR의 자선적 책임>법적 책임’ 및 ‘CSR의 경제·윤리적 책임 부동’을 의미하며 성분 4열의 적재값이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ODAei, ODAcc, ODAbop는 각각 ‘개도국의 경제적 자립’, ‘기업·사회 동시발전’, ‘빈곤층 소득개발’을 의미하며, 성분 5열의 적재값이 추출되었다. 성분 1열~5열의 적재값은 모두 0.4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며, 각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SPSS 22를 활용하여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CSV, BOP, CSRd가 본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시한 ‘전략적 CSR 모델’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 CSV의 요소들은 전략적 CSR모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설 1-1은  $R^2 = 0.067$ , Durbin-Watson=1.799,  $F$ 검정 유의확률=0.03,  $t$ 검정 유의확률=0.03, 표준계수 베타값=0.259로 채택되었다. 가설 1-2은  $R^2 = 0.105$ , Durbin-Watson=1.798,  $F$ 검정 유의확률=0.000,  $t$ 검정 유의확률=0.000, 표준계수 베타값=0.323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2. BOP모델의 요소들은 전략적 CSR모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은  $R^2 = 0.222$ , Durbin-Watson=1.750,  $F$ 검정 유의확률=0.000,  $t$ 검정 유의확률=0.000, 표준계수 베타값=0.471로 채택되었다. 가설 2-2는  $R^2 = 0.068$ , Durbin-Watson=1.812,  $F$ 검정 유의확률=0.03,  $t$ 검정 유의확률=0.03, 표준계수 베타값=0.260로 채택되었다. 가설 3-3은  $R^2 = 0.102$ , Durbin-Watson=1.738,  $F$ 검정 유의확률=0.000,  $t$ 검정 유의확률=0.000, 표준계수 베타값=0.320로 채택되었다.

*가설 3. CSRD의 요소들은 전략적 CSR모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은  $R^2 = 0.045$ , Durbin-Watson=1.615,  $F$ 검정 유의확률=0.17,  $t$ 검정 유의확률=0.17, 표준계수 베타값=0.212로 기각되었다. 가설 3-2은  $R^2 = 0.057$ , Durbin-Watson=1.754,  $F$ 검정 유의확률=0.07,  $t$ 검정 유의확률=0.07, 표준계수 베타값=0.238으로 기각되었다.

*가설 4. 전략적 CSR모델의 요소들은 공적개발원조의 성과제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은  $R^2 = 0.30$ , Durbin-Watson=2.157,  $F$ 검정 유의확률=0.000,  $t$ 검정 유의확률=0.000, 표준계수 베타값=-0.57로 채택되었다. 가설 4-2은  $R^2 = 0.157$ , Durbin-Watson=2.191,  $F$ 검정 유의확률=0.003,  $t$ 검정 유의확률=0.03, 표준계수 베타값=0.38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4-3은  $R^2 = 0.01$ , Durbin-Watson=1.868,  $F$ 검정 유의확률=0.783,  $t$ 검정 유의확률=0.783, 표준계수 베타값=0.25로 기각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통상구조가 다각화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세계 각국에 자원이나 식량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타 국가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에도 150개국 이상의 개도국이 빈곤·분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서 공적개발원조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공적개발원조의 성과를 제고시키는데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을 재차 부각시키자면, 현재 많은 기업 및 기관에서 개념 정립에 혼동을 겪고 있는 CSR에 대한 통합적인 재정의의 실시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편협하고 소극적인 범위에서의 CSR 정의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영에 부합한 전략적 CSR 모델을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기반을 두어 재정립하였으며, 해당 모델의 매개효과가 공적개발원조의 성과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은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정책 및 연구 방향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SV를 통한 투입비용을 상회하는 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및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적 CSR모델의 구성요소인 공여국·수원국간의 경제적 호혜관계 구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효과로 하여 기업·사회의 동시발전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적개발원조의 성과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둘째, BOP비즈니스를 통해 공여국의 기업이 개도국(수원국)의 저소득층 빈민들을 위해 현지상황을 통한 맞춤형 전략을 펼치며 보다 좋은 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개도국의 자원 활용에 전제되는 인프라에 개발·투자하며, 중소기업, 정부기관, NGO, 개발협력기관, 빈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집단 기업이 정신(Entrepreneurship as a massive scale)을 발휘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적 CSR모델 중 개도국의 불합리한 임금체제 및 비윤리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효과로 하여 결과적으로

로 빈곤층의 소득을 개발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성과를 제고시킬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CSRD, 즉 CSR의 정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 Carrol의 ‘CSR Pyramid’ 중, 개도국에 대한 ODA를 수행할 시에는 그 우선순위를 경제적 책임→법적 책임→윤리적 책임→자선적 책임에서 경제적 책임→자선적 책임→윤리적 책임→법적 책임으로 유연하게 수정하여 실시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매개효과로 하여 개도국의 경제적 자립 및 자주적인 개발·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가설은 기각되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CSV와 BOP비즈니스는 본 연구에서 제창한 공적개발원조의 성과제고를 위한 전략적 CSR모델에 부합하며, CSRD는 포함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SV와 BOP비즈니스를 통하여 공여국과 수원국간에 경제적 호혜관계를 구축하고 개도국의 임금체제와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전략적 CSR모델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시발전을 유도하고 빈곤층의 소득개발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분석결과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인 차원에 이르고 있는 오늘날, ODA의 주체들은 CSR을 실천하는데 있어 CSV와 BOP비즈니스를 고려한 원조전략을 펼침으로써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전략적 CSR모델을 통한 ODA를 국제사회의 양극화 해소 전략으로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학자들이 주장했던 CSV, BOP모델, CSRD 등 CSR과 친화성 있는 개념들이 결코 CSR과 이질적인 별개의 개념이 아니며,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영에 부합한 전략적 CSR이란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주장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한계를 느꼈던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 수집의 한계이다. CSR 및 그와 친화성 있는 다양한 제반 개념들과 관련해서 기업 재직자, 공무 수행자, 연구자, 국제경영 및 경제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한 점에는 충분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관한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공여국의 ODA 실시기관 및 해외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수원국(개도국)의 ODA 수혜자 주체 및 집단 등으로 표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으나, 공교롭게도 그 범위 및 대상이 국내의 주체들에 그쳤다.

둘째, 연구모형 중 ‘공적개발원조 성과제고’의 구성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확인하지 못한 점이다. 실증분석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 변수의 요인들의 가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나, 그 전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이론적 근거가 있었다면 보다 체계적인 논리를 전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대 국제경영에서의 전략적 CSR모형을 재조명하였으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 CSV, BOP모형, CSRD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허나 이 외에도 구시대적, 전통적 범위에서 탈피한 전략적 CSR모형은 아직 발전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 해당 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한 탐색적인 연구가 향후에도 계속됨으로써 다양한 주체 및 기관들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CSR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라는 포괄적인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전략적 CSR이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차관, 다자간원조 등 세부적인 ODA 분야에서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 또한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 참 고 문 헌

- 구정우·김율리·김대옥, “글로벌 사회공헌에서 공유가치 창출로: 국제개발 민관협력 혁신모델의 조건”,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1호, 국제학연구소, 2015. 3.
- 김민재, “해운기업의 CSR 활용전략을 위한 연구모형 도출에 관한 고찰 - CSR피라미드 모델을 이용하여 -”, 무역경영연구 제11호, 한국무역경영학회, 2017. 4.
- 김성규, “기업의 글로벌 CSR 현황과 공유가치창출(CSV)”, 국제개발협력 제2014권 제1호, 한국국제협력단, 2014. 2.
- 손혁상·박보기·김남경,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연구: KOICA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2호, 국제학연구소, 2014. 6.
- 여현덕, “국제개발협력에서 기업참여의 논리와 유형: 그 가능성과 한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7권 제3호,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9.
- 유명훈, CSR과 지속가능경영 I, HM연구소, 2008.
- 이호갑·이걸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22권 제1호, 대한회계학회, 2017. 2.
- 정진섭 외, “공유가치창출(CSV)에 기반을 둔 한국의 ODA 전략”, 국제경영리뷰 제18권 제4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4. 12.
- 向山 敦雄, “CSR再考: CSRはカメレオン?”, 國際學研究 第6卷 第2号, 關西學院大學國際學部研究會, 2017.
- 水尾 順一, “グローバルCSRの視点によるBOPビジネスと共益の創造 - ガーナにおけるカカオ・サステナビリティの要諦と展開 -”, 駿河台經濟論集 第21卷 第2号, 駿河台大學, 2012.
- 鈴木 均, “グローバルCSRの潮流: 「サステナビリティによる価値創造」へ”, 21世紀社會デザイン 第15号, 立教大學大學院21世紀社會デザイン研究科, 2016.
- 大浦 眞衣, “CSRへの取り組みと財務パフォーマンスの関係性 - 上場企業のパネルデータを用いた實証分析 -”, ノンプロフィット・レビュー 第17卷 第1号, JAPAN NPO RESEARCH ASSOCIATION, 2017.
- 井上 貴也, “取締役の義務とCSRに関する一考察”, 東洋通信 第53卷 第6号, 東洋大學通信教育部, 2017.
- 小林 甲一·後藤 健太郎, “韓國における社會的企業の育成政策と展開”, 名古屋學院

- 大學論集. 社會科學篇 第53卷 第3号, 名古屋學院大學總合研究所, 2017.
- 谷内田絢子·土肥眞人 “國際協力活動における日本の企業とNGOのパートナーシップの實態と可能性”, *ノンプロフィット・レビュー* 第14卷 第1&2号, JAPAN NPO RESEARCH ASSOCIATION, 2014.
- 葉山 彩蘭, “Business to SocietyからBusiness in Societyへ - 「企業都社會を捉える視点の轉換」 -”, *日本經營倫理學會誌* 第12号, 日本經營倫理學會, 2005.
- Friedman, M.,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Vol.74 No.3684, New York Times Comapny, 1970.
- Porter, Michael E. and Mark R. Kramer, “Strategy &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Vol.84 No.12, Harvard University, 2006.
- Porter, M. E. and Kramer, M. R.,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Harvard University, 2011.
- Prahalad, C. K.,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Wharton School Publishing*, New Dehli, 2005.
- JICA, 國際協力・ODAについて, <https://www.jica.go.jp/aboutoda/basic/03.html>
- JICA, 國際協力・ODAについて, <https://www.jica.go.jp/aboutoda/whats/cooperation.html>
- KOICA, ODA알기, <http://www.koica.go.kr/dev/printPopUp.jsp>
-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33364>

## ABSTRACT

### A Study on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ODA Trade

Min-Jae KIM · Tae-Hoo KIM

This study, focused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s a solution to the global polarization and demonstrated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lays a role in raising the performance of ODA.

First, socio - economic value and profit - created by CSV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nstructing an economic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 countries. In addition, it has shown that it promotes the simultaneous development of companies and society through the strategic CSR model and consequently contributes to the achievement of ODA.

Second, it suggests that the elements of the BOP mode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the unreasonable wage system and unethical working condi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Furthermore, this suggests that improving the income of the poor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ODA.

Third, this study reconstructed 'CSR Pyramid' of Carrol and newly devised CSRSD theory. In the case of ODA to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legal, ethical, and charitable responsibilities are set priorities.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priority should be flexibly set as economic → charitable → ethical → legal responsibility.

This study reexamines the strategic CSR model in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field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CSV, BOP, CSRSD model as the constituent elements. In addition, the strategic CSR model that has moved away from the traditional and old-fashioned perspectives still has room for development, and exploratory research to develop the model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clarifying the concept and scope of CSR.

Keywords : CSR, CSV, BOP, CSRSD, ODA